

##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호놀룰루
파견대학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파견기간	2017. 08 – 2018. 05
귀국여부			

###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University of Hawaii at Manoa는 Manoa지역에 있고 하와이 주립대학교라고 불립니다. 캠퍼스는 Upper campus와 Lower campus로 나뉘어져 있고, 대부분 전공 수업들은 Upper campus에서 듣게 됩니다. Lower campus에는 stadium이나 운동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Upper campus는 우리학교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큼니다. 저는 Business가 전공이라 주로 Shidler college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공 수업을 듣지 않는 이상 거의 한 건물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p>

2017-2학기  
2018-1학기  
수업

1. Principles of Marketing (순천향대: 마케팅원론)

제가 들었을 때는 Amada교수님이었습니다. 다른 보통 PhD 교수님들과는 다르게 Amazon에서 일하다가 오신 분으로 수업 내용 중 주로 Amazon을 예시로 들 때가 많았습니다. 큰 과제는 팀 과제가 한 개 있는데 4명의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조장이 되어서 하나의 Paper를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주제는 교수님께서 정해주시고, 본인이 Paper를 쓸 차례가 아닐 땐 다른 조원들의 Paper에 comments를 달아주었습니다. 시험은 노트북을 가져와서 강의실에서 봤고, 난이도가 높은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2학기 수업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2. Human Resource Management (순천향대: 인적자원개발론)

Hannah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베트남계 교수님인데 accent가 조금 강한 편이라 저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학기동안에 2번의 조 발표가 있었고, 매주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 과제 한 것을 바탕으로 매주마다 팀원들과 discussion을 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가장 싫어했는데 일단 discussion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조원들의 말도 잘 알아듣기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수업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시험들은 쉬웠고 (수업 자료인 ppt만 몇 번 읽으면 되는 객관식입니다.) 만약 들으신다면 첫번째 학기보단 두번째 학기에 추천드려요.

3. Organizational Behavior (순천향대: 조직행위론)

Stacy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interactive한 것을 좋아하시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익숙치 않아 항상 긴장하고 갔던 수업이었습니다. 역시나 조별발표가 있고 수업시간 중에 조별로 하는 activity들이 꽤 있었습니다. 시험은 한 번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내야하는 individual paper가 있었는데, 6-7장 분량이었고,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영작문 수업을 꽤 들어서 오히려 paper과제가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 paper를 하기 위해서 교수님과의 미팅이 있고 조별과제 또한 마찬가지로 교수님과 미팅이 있습니다. 학기 말 발표는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영화를 하나

선정하여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접목시키는 발표였습니다. 저희 조는 12 angry men이라는 옛날 흑백 영화를 골랐고, 실제로 영화처럼 재판장과 배심원 컨셉으로 옷도 입고 발표했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교수님의 advice를 바탕으로 report를 제출하게 됩니다.

#### 4. ELI (Listening class)

(순천향대에서 일반 선택으로 2학점 인정됩니다.)

UH Manoa는 일정 토플 점수 이하인 학생들이 봐야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에 따라 ELI수업을 듣기도 하고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Listening이랑 writing 두개를 들었어야 했는데 한 개씩 나눠서 들어도 된다고 해서 listening을 먼저 들었습니다. 수업은 굉장히 쉽고, 개인적으로 리스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너무 쉽고, 그냥 본교 영어회화 같은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수에 따라 배정받은 반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가 두개정도 있었고, 과제들은 거의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과제가 많아서 드라마보, ted시청하기 등등을 내줬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교환학생끼리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수업이었습니다.

### 1. Accounting

Boo Chun Jung 교수님이었고, 교수님이 한국분이셨습니다. 60명이 넘게 들었던 대강의였고 한국식 수업에 익숙했던 저에겐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발표나 조별과제는 따로 없고 mypearson 홈페이지에서 한 학기에 7-8개 정도의 과제가 있었는데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2번에 기말고사 1번이 있었고, 객관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공부는 하고 보셔야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좀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던 로컬 친구랑 친하게 지내서 과제 할 때나 수업들을 때 서로 얘기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들었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extra credit을 줄 때가 많습니다.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볼 때 계산기가 필요한데, 교수님이 좀 가져오시킨 하지만 계산기가 원래 있다면 한국에서 가져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 2. Business statistic

Chris 교수님 수업이었고, 교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수업 선택 한 걸 학기 내내 후회하고 매일매일 힘들었지만 끝난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배울 게 많았던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있는 수업이었고, 본인이 수학 특히 통계에 익숙하시다면 좀 더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약해서 수업 듣는 내내 어려웠고, 특히 살면서 수학적 용어를 영어로 들을 일이 거의 없는데 한국어로도 잘 모르는 걸 영어로 배우고 또 그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해도 그 한국어 단어마저 수학 용어라서 모를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7개의 problem set이 있었고 무조건 적인 조별과제는 아니지만 교수님이 난이도가 있으니 조로 하는 걸 추천해주셔서 그냥 근방에 앉은 애들과 조가 자연스레 됩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어려웠고, 시험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험은 중간 기말 두번인데 둘다 오픈북에 오픈노트이고 본인이 수업시간에 배운 개념을 과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면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없었고, 교수님이 좀 자주 시키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이 싫으신 분들에겐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수님 찾아가서 모르는 것 물어본 적은 있었는데 1시간 30분 동안 친절히 설명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모른다면 놓고 있지 마시고 꼭 교수님 찾아가셔야 합니다.

	<p>3. Micro economic</p> <p>130명 이상이 듣는 대강의였습니다. 교수님 성함은 기억이 잘 안나는데 부탄에서 오셔서 정말 강한 accent를 가지고 있어서 수업 내용이 뭐라는 건지 잘 모를때가 많았습니다. 대강의에다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거의 터치를 안하셔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로 항상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수업이 아니었지만 솔직히 도움이 되는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과제가 5개 정도 있었고 난이도는 쉬운 편이며, 시험은 중간2개 기말1번으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에 비해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얻는게 많지 않으니 시험 전에 개인적인 공부가 필요한 수업입니다. 발표는 없었습니다.</p> <p>4. ELI (Writing)</p> <p>Amy 교수님이었고 ELI수업들은 대부분 석사, 혹은 박사 과정 진행중인 학생들이 주로 진행합니다. 과제가 정말 많고 좀 교수님이 깐깐한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그대로 writing에 관한 수업이고 한 학기동안 3개의 paper를 써야합니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지만 어쩔 땐 전공 수업들 보다는 해야할 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안들을 수 있다면 듣지 말라고 하고싶네요.</p>
프로그램 운영	<p>MIX라고 International students를 도와주는 부서가 있습니다. QLC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도착하고 나서 교환학생들이랑 같이 VISA에 관련된 걸 들었던 것 같아요. OT도 있었고, 그 때 동아리들을 소개해주는데 주로 International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여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가입하진 않았어요. 실제로 개강하기 전에 두번인가 가보고 2학기 내내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그래도 가면 친절하게 응대해줬고, 이메일로도 가능하니 모르는 것 있으면 주저마시고 방문하세요!</p>

--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답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더위에 익숙해져서 11월 이후 되면 춥다고 느껴집니다.(실제로 11-1월 정도 까지는 기온이 조금 떨어집니다.) 비가 자주오기 때문에 접이식 우산을 자주 들고 다녔습니다. 비가 자주 와도 금방 그치는 비가 대부분이라서 학생들이 대부분 우산을 쓰진 않습니다. 그래도 한국 장마 같은 비도 대부분 와서 flood 경고 알람을 5번 이상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덩기만 할 줄 알고 거의 반팔 위주와 긴팔은 두개 인가 가져갔는데 건물 내와 버스에 AC가 정말 심해서, 27도인 날씨에도 긴팔입고 다닐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긴팔이나 가디건 같은 것 좀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p>
안전	<p>미국 내에서 굉장히 안전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본토에 살아본 적은 없어서 비교할 순 없지만 밤에 길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홈리스가 정말 상상이상으로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해를 가하려고 한 적은 없었지만 말 걸때도 많았고 약(대마초나 마약같은?) 한 사람이 많아서 버스 기다리고 있을 때 구석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으면 진심으로 무서워요. 어쨌든 안전한 주라고 해도 너무 방심하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밤에는 친구들과 같이 다니고 너무 늦게까지 다니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Downtown은 홈리스도 유독 많고, 좀 험한 곳이라서 낮에 다닐 때도 가끔 무섭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친구랑 같이 downtown에서 밥 먹으러 가다가 갑자기 어떤 홈리스</p>

	<p>한명이 제 친구 가방에 침 뱉고 욕한 적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에서 친구랑 8-9시 경에 공원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한국인이냐며 중국인이냐며(홈리스나 수상한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물어봅니다.) 계속 대답 안하고 피해도 끝까지 따라왔던 적도 있었어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경계는 해야할 것 같아요. 저는 이용해 본 적 없지만 학교에서 늦게 까지 공부하거나 늦게 캠퍼스 내에 걸어가야 할 때 Manoa safety라고 학교 측에서 24시간 운영하는 건데, 기숙사로 데려다 주거나 같이 가준다고 하니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p>
<p>숙소</p>	<p>학교기숙사( ) 홈스테이 ( ) 외부 숙소(o) 기타( )</p> <p>저는 처음 한 달은 같이 온 동생과 외부 숙소에서 룸메이트로 지냈고, 그 이후부터는 room rent를 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studio가 아닌 혼자서 방만 쓰고 주방이나 화장실 공유) 한달에 600불이었는데 하와이에서는 정말 저렴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방에 에어컨은 없었지만 한 낮에 방에서 있는 것 아니면 그럭저럭 살 만 했고 (학교 기숙사도 frear hall 빼고는 아마 에어컨 없을 거예요) 기숙사보다 저렴하고 밀플랜 이용 안해도 되어서 외부숙소로 얻었습니다. 저는 Makiki에 살았는데 학교와 버스로 8분 이내 알라모아나도 버스로 10분, 걸어서 25분 정도 걸려서 거리상으로도 좋았고 한국분들이 많이 살고있는 지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숙사에 꼭 살아야할 이유가 있는게 아니라면 외부숙소도 추천드려요.</p>

식사	<p>학교 Meal Plan ( ) 학교식당 개별이용 ( ) 홈스테이 ( )</p> <p>외부식당 ( o ) 직접 요리 ( o ) 기타 ( )</p> <p>앞서 말했듯이 저는 외부 숙소에서 살아서 주로 제가 만들어 먹었고, 그렇지 않을 땐 사먹었어요. 보통 식비는 한끼에 12불이상은 드는 것 같아요. (외식) 하와이는 물가가 비싼 편이라서 주로 직접 해드신다면 식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p> <p>하와이에서는 주로 버스를 타게 되는데 UH Manoa는 학기 시작 할 때 캠퍼스 센터에서 학생증에 붙이는 버스패스 스티커를 줍니다. 그걸로 한 학기 이용이 가능하고, 버스에 탈 때 보여주고 타면 됩니다. 만들기 전에는 한번탈 때 \$2.75 혹은 원데이 패스라고 해서 \$5.5 내면 하루종일 탈 수 있어요. 한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시작 전에 캠퍼스 센터 가서 다음학기 버스패스 스티커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p>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편도로 두번 끊었어요. 140만원정도.	
Fees	따로 학교에 낸 건 없었습니다.	
보험료	ISO 보험을 들었고, 한화 50만원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것도 학교 추천하는 보험이기도 해요)	
숙소	한달에 \$600	
식비	식비랑 그냥 용돈으로 한달에	

	\$400 - \$500 정도 사용하였고,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별로 안쓰편입니다. 참고해주세요.	
교통비	X	
책값	TEXT BOOK으로 사면 책값이 정말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 E-BOOK이 있는데 저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TEXT BOOK으로 샀지만, 보다보면 익숙해지니 그냥 E-BOOK으로 사세요. 그게 더 저렴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수업중에 text book위주로 수업했던 교수님들 많이 없었어요.	
기타1	쇼핑 같은 것 가끔. (식비+쇼핑=한달에 \$400-500)	
기타2	학기 초 (8월과 1월)에는 특별히 돈 쓸 때가 많아서 그때는 평소 쓰는 것에 비해 +\$150 정도 사용했어요.	
합계	대략적으로 \$10,000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안쓰 편이에요.)	

## 5. 출국 전 준비사항

보험 등 학교에서 미리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미리 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안해간 학생들은 하와이 도착해서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냥 저는 미리 미리 해야할 것 꼼꼼히 하는 편이라서 그게 더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저도 교환학생 가기 전에 사람들이 영어공부를 한국에서 더 해가라고 했을 때 공감은 안갔는데, 정말 한국에 있을 때 미리 공부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처음 외국 도착하고 전공 수업듣는 건 평소에 본교에서 듣는 원어민 수업이랑 정말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와이는 인종이 다양한 편이라서 우리가 익히 아는 미국 백인들의 ACCENT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더 듣기 어려웠어요. 경영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mentor 개념의 친구를 미리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멘토 멘티 관계를 만들어주는데 (?) 저는 그걸 신청했어서 완전 처음 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고, 초반까지도 꽤 만나서 잘 놀았었어요. 아, 그리고 혹시 4학년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본교에서 전공수업을 많이 듣고 가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UH Manoa에서 주로 전공수업보다는 홀라, 수영, 하와이안 스터디 같은 것들 많이 들었는데 저는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본교에서 전공으로 꼭 인정받아야 했어서 전공을 위주로 들었었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았던 경험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처음 학기엔 따라가기 벅찼을 때도 있었습니다. 꼭 한국에서 전공 많이 듣고 여기서도 교양 위주로 듣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9개월이 정말 그냥 3박 4일 여행한 것처럼 끝이 났어요. 저는 9개월 동안 8개월은 한국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막상 가기 일 이주 전 되니까 아쉽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더라고요. 남들의 수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교환학생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 갔고, 여기서 도대체 뭘 얻는 게 있나 조금 회의적인 시선으로 봤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전 앞서 말했듯이 전공 위주의 수업이 조금 버거웠습니다. 제가 주로 들었던 게 300번대 수업이었는데, (실제로 파견 대학에서도 3-4학년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에요.) 교환학생은 저 혼자였고, 어쩔 땐 진짜 너무 하기 싫고 부담되고 긴장되어서 올 때도 많았어요. 특히 2주 안에 전공 발표가 3개 있었던 주가 있었는데 그때 다 때려치우고 한국 가고 싶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수업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부담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나고 난 뒤에 보람과 뿌듯함도 정말 크게 느꼈어요, 교환학생이라고 특혜를 본 것도 없었고 같은 수준에서 경쟁해서 나름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고, 교수님들이나 같이 조별 과제를 했던 친구들이 좋게 피드백을 해줬을 때에는 정말 정말 좋았고, 보람찼어요! 저도 주변에서 특히 교환학생 갔었던 언니들이나 유학 간 친구가 항상 해줬던 말은 한국에서도 전공수업 듣기 쉽지 않은데 영어로 전공 수업 듣는 게 당연히 어렵다고 해줬을 때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저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걸로 들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가서 수업을 듣다가 나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힘들 때 꼭! 혼자만 힘든 것 아니고 누구나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 생활하는 것들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친구들을 일부러 많이 안 만들었고, 실제로 친하게 지냈던 한국 친구들은 3명 정도였어요. 아예 배척하고 안 만들 필요는 없지만, 사실 한국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만큼 긴장하지 않고, 영어에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권 친구 아니어도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나 다른 아시아권, 아니면 로컬 친구들, 미국 친구들 다양하게 말 걸어보고 같이 놀면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웨덴 친구, 일본 친구들, 로컬 친구, 미국 친구들 다양하게 운 좋게 저를 잘 챙겨줘서 오기 전에 친구 못 사귄까 봐 걱정했었는데 반대로 심심할 틈 없이 잘 놀고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생활을 제일 잘 하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더 놀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시간들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혼자 도서관에서 수업시간에 배운 것들 정리하고, 노트 정리하는 게 나름 힐링(?)이었어요.

하와이는 정말 바다와 산 밖에 없습니다. 평생 등산 안 해본 저는 여기서 하이킹이 취미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하이킹을 꼭 갔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도 할 줄 모르고 바다에 몸 담그는 건 안 좋아해서 가도 노래 듣고

도시락 먹는 재미로 갔었는데 바다에서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 살면서 지루하고 섬이라서 답답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오히려 섬이라서 이곳저곳 버스로도 심지어 다 돌아볼 수 있어서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르바이트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비자라서 QLC가서 물어보면 자세히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알려줄 거예요.





한국에 온 지금 하와이를 생각하면 너무 꿈같고, 다시 가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지만 역시 한국이 편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동안엔 하와이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공부나, 해야 할 것들도 챙기면서 놀 수 있으니까 너무 놀기만 하진 않으셨으면..! 하지만 성적에 대해선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F나오는 거 아니야? = B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 일본 친구는 하와이에 있을 때 토익을 자주 보던데, 하와이에 있을 때가 오히려 여유로운 거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들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ㅎㅎ

교환학생 가서 뭘 꼭 해야 하고, 뭘 꼭 이뤄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뭘 안 하는 건가라고 조금해 하지 말고 잘 즐기다 오시길! (이런 좋은 기회를 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며 연락도 자주 드리세요..ㅎㅎ)

항상 뭔가 의문점이 들면 MIX에 먼저 문의하시고, 그리고 해결 안된다면 순천향대 국교처에 문의하세요!

##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Hanauma Bay</p>	<p>Aloha Stadium</p>
	
<p>City Hall</p>	<p>UH campus &amp; Rainbow</p>



Acai Bowl ☺ <3



Ko Ko Head